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4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출판물 무단복제 '골치 아프네'

의학 및 기술도서 등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외국 도서에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던 복사출판이 국내출판물까지 침범, 인쇄 · 출판업계의 불청객으로 자리잡았다.

1988년 4월 8일자 인쇄신보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단속요원을 5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포스터형의 경고문 5천장을 전국의 복사업소, 도서관, 서점 등에 배부, 부착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복제 · 판매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출협이 조사한 불법복제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대학가 복사점에 의한 대학교의 불법복제행위. 이는 기존출판사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유형으로 지적됐다. 이들 복사점들은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학교재 선정정보를 입수, 대량으로 복제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유형은 어학교재와 학습참고서의 해적녹음테이프를 책과 함께 복제판매하는 것. 복제대상 품목은 주로 시사영어사, CPI 광장, 웅진출판사 등이 발행중인 20종의 영어회화나 학습교재들이었다.

셋째는 기업체에서 사내연수용으로 구입하던 책을 대량복제해서 배부하는 경우였고 넷째 유형은 일선학교에서 여러 문제집을 적당히 오려 재차 문제지로 제작한 뒤 수업에 이용하는 사례가 끼였다. 특히 마지막 유형에 대해 출판관계자들은 "학생들이 일반 참고서나 문제집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불법복제는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라는게 출협의 설명. 이전에는 책의 표지로부터 판권면까지 복제하던 수법이 어떤 책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내용만을 복제한다거나 단속요원이 나타나면 인근복사점에 연락해주는 비상연락체제를 갖추는 등 갈수록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쇄신보는 전했다.

제지업계 수요는 늘고 생산율은 둔화

1975년 4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지류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속에서도 펄프의 생산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보의 기사에 따르면 펄프의 국제시세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세계 펄프수급 사정은 펄프공급 구조의 지역적 편재의 심화, 각종수입 관세로 인한 펄프 무역의 제약, 에너지 문제, 공해 등이 난제로 떠올랐다. 당시 기사에 인용된 유엔통계에 따르면 1972년중의 세계펄프 생산량은 1억6백만톤(기계펄프 2700만톤, 화학펄프 7900만톤)으로 1971년에 비해 1.5% 증가에 그쳤다. 생산국별로 보면 기계펄프는 캐나다(26.2%), 미국(25.0%), 핀란드(7.45)의 순으로 이들 3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58.6%를 차지했다. 화학펄프의 경우는 미국(42.6%), 캐나다(12.2%), 일본(10.0%)의 순이었다.

한편 1971년도의 세계펄프 교역량은 1400만톤으로 주요수출국은 캐나다(37%)와 핀란드(11%)였다. 미국은 세계펄프 수출량의 13%를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22%를 다시 수입, 9%의 순수입을 기록했다. 시보는 미국이 앞으로 신문용지를 비롯한 주요펄프 수입국으로 전향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보는 또한 주요 펄프수출국들이 종래에는 펄프형태로 수출하던 것을 이제는 산지에서 직전 완제품으로 가공 수출함으로써 가득률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 펄프수급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출판계 새로운 출판기획 강화 러쉬

1986년 4월 11일자 인쇄신보는 새로운 출판기획을 강화하고 전문도서발간 체제를 구축하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출판계의 소식을 전했다.

인쇄신보는 출판사들이 대량생산 단계에서 벗어나 다량소부수 생산을 지향, 전문화시대로 접어든 독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조사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2월 말 현재 도서발행종수는 전년동기대비 30.8%(1629종)가 늘어난 6916종, 발행부수도 40.5%(830만부)가 증가한 2800만부를 기록했다.

이처럼 도서발행 종 · 부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인쇄신보는 각 출판사들이 새로운 출판문화를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욕적인 출판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학습참고서의 경우 전년도 2월의 576종에서 955종으로 379종(65.8%)이 늘어났으며 이동도서 역시 전년동기대비 665종(95.7%)이 증가한 1380종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학습참고서와 아동도서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초중고용 참고서가 출판되기 시작했기 때문. 또한 기존의 학습참고서 출판사 이외에도 다른 출판사의 학습참고서 출판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두 도서외에도 문학과 순수과학분야만을 제외한 종교(144종), 철학 · 사회과학(141종), 기술과학(86종), 어학(53종)등도 도서 종 · 부수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인쇄신보는 세계 출판업계의 흐름이 출판종수는 다양해지는 대신에 종당 발행부수는 줄어드는 추세여서 국내 출판업계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출판정보와 기술도입 등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글서체 개발에 관심을

"우리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측면에서 제작되어야 한다" 1985년 4월 26일자 인쇄신보는 시론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한글서체 개발을 위한 인쇄업계의 관심과 애정을 호소했다.

인쇄신보는 "우리는 지금부터 550여년 전에 세종대왕이 쓰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한 우리글인 한글을 반포한 이래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훌륭한 글자도 지니게 되었지만 이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는 소홀한 것 같다"며 우리글의 서체개발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인쇄신보가 인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일부 한글서체가 외국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것.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사진식자기나 각종조판 시스템의 한글서체가 일본에서 제작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쇄신보는 "우리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측면에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인쇄계에서 세로쓰기 체계로 되어 있는 자체도 가로쓰기 모양에 맞는 서체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쇄신보는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글서체의 개발은 몇몇 사람의 노력이나 특정회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기 어렵다"며 "관계기관과 인쇄 · 출판업계 · 관련연구기관들이 힘을 합해 장기적 안목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인쇄신보는 "우리가 아무리 한글의 우수함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는 서체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이르러 냉엄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아름다운 한글을 더욱 빛내기 위해 서체개발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